

산업계 탄소중립 전환 용자지원 접수 결과

- 자원순환, 친환경 자동차 등 분야 총 53건, 1조 3,866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에 용자 7,303억 원, 이차보전 282억 원 신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2023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 프로젝트 용자지원 사업」(이하, “용자사업”) 신청접수를 4월 28일(금) 마감했다. 53개 기업이 3년간(‘23년~’25년) 총 1조 3,866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용자 7,303억 원, 이차보전 282억 원 지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미래 기술·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장기·대규모 시설 및 연구개발 투자 프로젝트

‘23년도 지원 경쟁률은 신청금액 기준으로 용자 13.5:1, 이차보전 3.5:1로 나타났다. 이는 용자지원만 공모했던 '22년도 경쟁률 4.9:1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이번에 신청한 기업의 탄소중립 시설과 연구개발 투자계획을 분석해보면, 우리 산업계가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다양한 선도프로젝트 분야에 지속적인 탄소중립 투자를 이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 유형별로는 중소·중견기업이 참여 수가 86.8%(46개사), 투자 규모는 69.5%(9,656억 원)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견기업의 전년 대비 참여 수는 2배(‘22년 3개사 → ’23년 6개사), 투자 규모는 5배(‘22년 864억 원 → ’23년 4,398 억 원) 증가했다.

< '23년 선도프로젝트 신청기업 유형별 투자 규모 >

(단위: 개사, 억원)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합계	
신청기업 수	7 (13.2%)	6 (11.3%)	40 (75.5%)	53 (100.0%)	
투자 규모	시설	4,071 (32.0%)	4,398(34.5%)	4,270 (33.5%)	12,739 (100.0%)
	R&D	161 (14.3%)	- (-)	966 (85.7%)	1,127 (100.0%)
합계	4,232 (30.5%)	4,398 (31.7%)	5,236 (37.8%)	13,866 (100.0%)	

프로젝트 유형별로는 자원순환, 건물(기타) 분야의 신청수요가 각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친환경 자동차, 이차전지, 제로에너지건물 분야가 각 4건, CO₂ 포집, 에너지 효율 향상 분야 각 3건, 철강, 석유화학, 차세대 태양광 및 풍력, 정유, 에너지 저장, 자동차, 조선 분야 각 2건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가 접수되었다.

'22년 신청수요와 비교하면 친환경 자동차와 제로에너지 건물 분야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22년 각 1건 → ’23년 각 4건) 철강, 정유, 석유화학,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 프로젝트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22년 총 8건 → ’23년 총 7건)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 사업의 전담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접수된 53개 프로젝트에 대해 신청 적격성 등 적합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과한 프로젝트는 정책 부합성, 기술 역량, 시장 잠재력, 경영 역량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5월 중 기술성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용자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높이기 위해 감축효과(감축량) 평가지표 배점을 상향했다. 또, 평가에 검증기관을 참여시켜 객관성을 높이고, 우수성이 입증된 프로젝트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산업부는 “용자사업이 우리 산업계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핵심 금융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용자지원」 개요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책임자	과 장	이한철 (044-203-4240)
		담당자	사무관	김현정 (044-203-4242)

□ 목적 : 2050년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목적으로 선도프로젝트*에 투자할 기업을 대상으로 장기·저리 용자자금 및 이차보전을 지원하여 탄소중립 산업생태계 조성 유도

*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미래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며, 기업이 계획하고 있는 장기·대규모 시설 및 연구개발(R&D) 프로젝트

□ 근거 : 탄소중립기본법* 제58조, 제70조, 친환경산업법** 제4조 내지 제6조

*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금융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정부는 산업환경 실천과제 추진을 위한 사업자의 설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을 기후대응기금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기간 : '22년 ~ 계속

□ '23년도 예산 : 1,470억원(용자1,450억원(출연), 이차보전 20억원(보조금))

□ 전담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 사업 주요내용

- (지원대상)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시설 및 연구개발(R&D) 투자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 (지원비율) 기업규모별 상이 (사업장당 프로젝트 소요자금 기준 중소기업 100%, 중견기업 90%, 대기업 50% 이내)
- (용자한도) 사업장 당 최대 500억원 이내(시설자금 500억원 이내, R&D 자금 100억원 이내)
- (대출금리) 매년 3분기 공공자금관리기금 용자계정 대출금리에서 2.0%p. 차감하여 대출금리 산정하되, 1.3%로 하한 설정
- (이차보전 지원금) 대출금의 2%
- (지원기간) 최대 10년(용자의 경우,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